



- 2017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
국외선진지 비교시찰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Jung-Gu Council

목 차

I.	방문목적	2
II.	방문개요	2
III.	방문(주요)일정	4
IV.	주요시찰 내용	5
	○ 공식기관 방문		
	○ 문화·예술분야		
	○ 관광 및 지역경제분야		
	○ 해양·항만분야		
	○ 기타분야(교통·건설)		
V.	시사점 및 특이사항	25
VI.	연수후기 및 정책제안 [의원별]	27
	○ 유명복 부의장		
	○ 김영훈 운영총무위원장		
	○ 임관만 의원		
	○ 한성수 의원		

- 2017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

국외선진지 비교시찰 결과보고

I

방문목적

- 세계 최고의 관광지인 서유럽(프랑스)의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해양·항만 등의 관광자원을 인프라 구축한 성공사례를 비교 시찰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I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7. 6. 22(목) ~ 06. 30(금) 【7박 9일】
- 방문국가 : 프랑스
 - 수 도 : 파리
 - 인 구 : 66,991천명
 - 면 적 : 643,801km²
 - 언 어 : 프랑스어(공용어)
 - GDP : 2조5700억\$(세계 6위, 2017년 IMF기준)
 - 종 교 : 카톨릭(약80%), 이슬람교, 프로테스탄트, 이슬람교 등
 - 기 후 : 해양성 기후(서부), 지중해성기후(남부),대륙성기후(중부와 동부)
 - UN 상임이사국,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의 회원국

○ 방문인원 : 7명

연 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1	중구의회	부 의 장	유 명 복
2		운영총무위원장	김 영 훈
3		의 원	임 관 만
4		의 원	한 성 수
5	의회사무과	전 문 위 원	손 영 식
6		의 사 팀 장	이 미 란
7		지방운전주사보	조 갑 진

○ 분야별 과제 지정

분 야	소 속	직 위(급)	성 명
문화·예술분야	중구의회	부 의 장	유 명 복
	중구의회	의 원	임 관 만
	중구의회	의 원	한 성 수
관광 및 지역경제 분야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김 영 훈
	중구의회	의 원	임 관 만
해양·항만 분야	중구의회	부 의 장	유 명 복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김 영 훈
기타 분야 (건설,교통 등)	중구의회	의 원	임 관 만
	중구의회	의 원	한 성 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전수행	의회사무과	전 문 위 원	손 영 식
		의 사 팀 장	이 미 란
		지방운전주사보	조 갑 진

Ⅲ

방문 주요일정

일 자	연수지역	일 정
제1일 6.22(목)	인 천 프랑스 (파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공항 → 프랑스 파리
제2일 6.23(금)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망디 전쟁 기념관 방문(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 문화 및 관광시설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베르니(모네의 정원), 몽생미셸 수도원
제3일 6.24(토)	프랑스 북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및 항만 관광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플레흐, 에르트타 • 파리로 이동 • 파리시내 야경관람 (유람선탑승)
제4일 6.25(일)	파리근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시설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르사유궁전 및 정원 / 오르세 미술관 – 노트르담 성당, 개선문
제5일 6.26(월)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시설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브르박물관 견학 – 몽마르트, 샹젤리제 등 파리시내
제6일 6.27(화)	남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마르세이유 • 자연 관광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상프로방스, 발랑쉴, 무스티에생뜨마리 등
제7일 6.28(수)	남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관광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즈, 그라스(향수박물관) • 해양 및 항만 관광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나코(해양박물관) • 니스 이동
제8일 6.29(목)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스 전망대 • 니스 → 암스테르담 → 인천 공항
제9일 6.30(금)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도착

IV

주요시찰 내용

■ 공식기관 방문

□ 노르망디 전쟁기념관 방문

○ 방문일시 : 2017. 6.23(금) 14:00 ~ 15:30

○ 참 석 : 9명

－ 노르망디 전쟁기념관

· 관장(Mr Stepane GRIMALDI, Directeur General)외 직원2명

－ 중구의회

· 유명복 부의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장, 임관만 의원, 한성수 의원

· 전문의원 손영식외 직원 2명

○ 주요내용

－ 기념관 운영 현황

· 2 차 세계 대전과 캉 전투를 기념하여 프랑스의 노르망디 캉 (Caen)에 있는 전쟁기념관

· 위탁사업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으로 계약기간 7년 운영

· 규모는 16,000㎡으로 1년에 40만명이 방문(학생 10%)

· 공공자본의 성격이라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편성 운영

· 전시물은 매입 · 기증 · 교환을 통해 확보

－ 기념관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 : **관람객들의 쉽게 접근 · 이해하도록 전시**

· 연도별 · 지역별로 2차대전 · 후의 사건과 내용을 스토리하여 구성

· 시설내의 cctv통해 7년간 방문객들의 관람자세 및 동선 등을 파악하여 data한 자료를 가지고 장 · 단기 전시계획을 할 때 마다 역사가와 교육자의 검증을 받아 담당자가 전시계획을 수립

· 변색이나 변질되지 않는 실물 전시물(담장벽, 폭탄, 총 등)은 유리벽이 아닌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

- 전시시설 관람(영상실, 전시실, 독일군 작전하던 벙커등)

○ 기타사항

- 향후 우리중구도 기존 박물관이나 개관할 영종역사관 그리고 중구로의 이전을 추진계획중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시물에 대한 구성이나 배치를 벤치마킹하여 무엇보다 관람객들이의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조성해야 할 것 이다.
- 또한 노르망디전쟁기념관에 전시물은 노르망디상륙작전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당시 2차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전시 함으로써 역사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젊은세대들에게 교육적 자원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사진



■ 문화 · 예술분야

□ 몽생미셸

-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지방 경계의 얇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해안선에서 약 1km 앞바다에 떠있는 ‘대천사 미카엘의 바위 산’ 으로 조수간만에 의해 육지가 되기도 하고 섬이 되기도 하는 신비로운 곳으로,
- 특히 밀물이 들어오고 어둠이 내리고 10시가 넘어서 서서히 몽생미셸 수도원은 거대한 수정이 박힌 듯 별보다 시리게 빛나는 섬으로, 야관경관이 아름답다
- 과거의 건설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약 2km 도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 심각한 환경을 훼손하였다가 수년간 대공사 끝에 2014년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어 옛모습을 되찾게 되었다고 한다.
- 섬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통수단은 도보(20분 소요)나 무료셔틀버스 ‘파쇠르(6분소요)’ 또는 마차(유료)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사진



※ 훼손된 자연과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도 현재 무의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 중이다.

몽생미셸을 거울삼아 무의도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상승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 지베르니(모네정원)과 베르사유궁전 · 정원

[모네의 정원]

- 모네의 집이 있는 지베르니는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76km 떨어져 있는 약 5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로, 인상파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가 무명 시절부터 1926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머물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던 마을로 유명하다.
- 모네의 정원은 모네가 연못과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여 연못위의 수련과 더불어 수백 종의 달하는 꽃이 일본식 다리와 함께 어울려져 있으며 계절별로 아름답지만 특히 5~6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 관련사진



[베르사유궁전과 정원]

- 베르사유 궁전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영광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된 바로크양식의 호화로운 궁전으로 볼거리가 풍부했다.
- 베르사유 정원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드넓은 대운하와 감귤원이 베르사유의 웅장함과 정형성을 대표하고 거기에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전원적인 풍경을 갖고 있는 한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궁전과 정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어서 몇시간만으로 관람하기에는 부족하다.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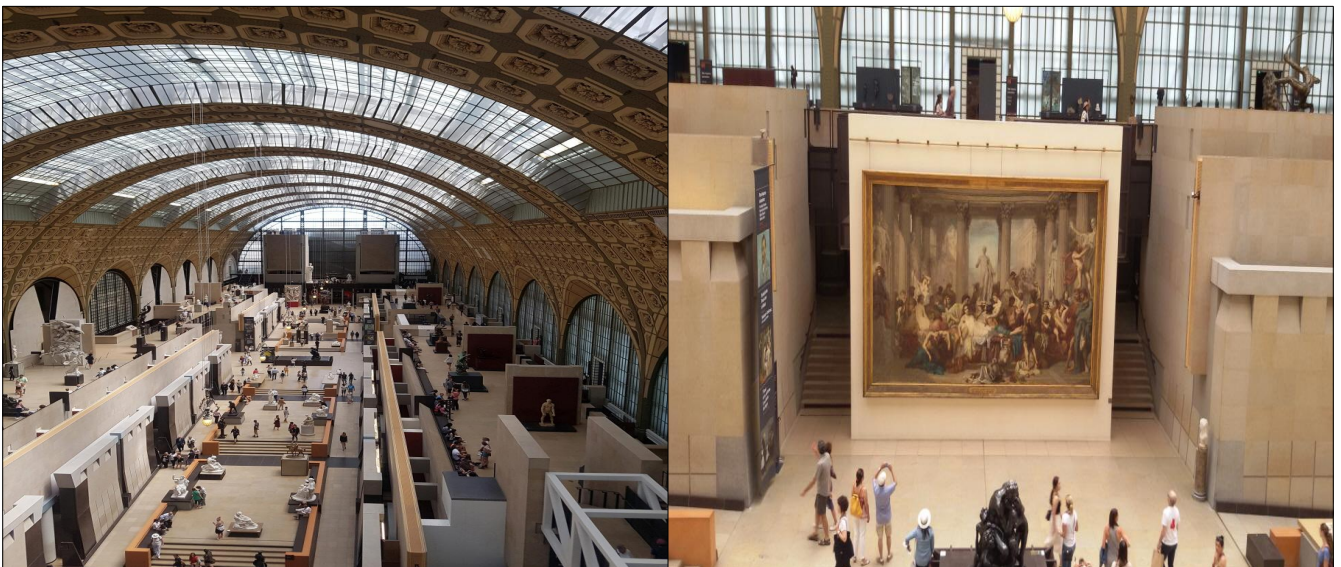


※ 현재 우리 중구도 8부두 개방구역내에 만국 야생화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비록 규모면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조성된다면 관광자원으로 한몫을 할 것이며, 아울러 정원관람을 위한 관광객이 유입되면 현재 무료개방 중인 8부두 주차장의 이용률 증가하여 주차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 오르세 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박물관]

- 1804년 최고재판소로 지어진 건물로 오르세 궁이라 불렸으나 불타 버리고, 1900년 개최된 ‘파리만국박람회’를 계기로 파리국립미술학교 건축학 교수였던 빅토르 칼로에 의하여 오르세 역으로 다시 지어졌다.
- 현대적으로 지은 역사였으나 1979년에 현재의 미술관 형태로 실내 건축과 박물관 내부가 변경되어 오르세 미술관’으로 개관되었다.
- 근대미술작품 2만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최적의 관람을 위해 기상변화에 따라 그림을 비추는 조명을 컴퓨터로 조정하기도 유명하다.
- 관람객들의 위한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식공간에도 조형물 등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 관련사진



[루브르박물관]

-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40만점 가량에 이른다.

○ 관련사진



※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박물관은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질서가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안내코스 지도, 오디오가이드북(한국어 포함) 그리고 전문미술해설사가 있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곳곳에 휴식을 할 수 있는 벤치와 조형물 등이 조성하여 휴식 동안에도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중구도 근대 개항장권역 역사와 문화유적을 체험하는데 문화관광 해설사의 “도보관광” 테마관광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디오가이드북은 현재 없는데 향후 만들어진다면 홀로 여행하는 관람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개항장 주변의 몰려있는 박물관이 소규모라서 박물관내 휴식공간이 별도로 없어 향후에는 주변에 잠시 쉴 수 있는 벤치 등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 같다.

□ 노트르담 대성당

○ 센 강의 시테 섬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성당. 12세기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잔다르크의 명예회복재판, 앙리 4세와 마르그리트 왕녀의 혼인, 나폴레오1세의 대관식 등 수많은 역사적 무대가 되기도 했다.

○ 관련사진



※ 우리중구도 120년의 역사를 간직한 답동성당 일원을 현재 역사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개항기 종교문화 유산으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다.

□ 개선문

- 나폴레옹이 1806년 오스텔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 중앙에 세우도록 건축가 살드랭에게 명령하여 30년뒤인 1836년에 완성되었다. 문 안쪽에는 여러가지 전쟁에 참전한 장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기둥 아래 부분에 무명 병사들의 무덤이 있다.
- 개선문의 위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관람객들에게 파리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 관련사진



■ 관광 및 지역경제분야

□ 파리의 야경(유람선 탑승)

- 프랑스 북서부를 흐르는 세느강을 따라 주요명소(루브르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오르세박물관, 에펠탑 등)을 1시간 10여분동안 로맨틱한 파리 야경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 세느강을 따라 볼수 있는 파리시내의 야경은 이미 유람선을 이용하여 관광상품화 되어 매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곳곳의 작은 마을과 성당에도 외관의 조명이 설치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사진



※ 우리 중구도 2014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때 석달간만 신포동의 패션의 거리에서 야경을 볼 수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상시는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야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들의 골목골목에 비추는 등마저 마을 경관으로 제공한다. 우리도 거리의 가로등이나 골목의 보안등을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중구 시가지도 저녁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상제리제 거리/미라보 거리

○ 상제리제 거리 (Avenue des Champs-Elysee)



상제리제거리 (Avenue des Champs-Elysee)는 파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이다. 개설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정면으로 있는 가장 큰 길의 거리이다. 유명 자동차 매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패션 브랜드 상점, 고급 레스토랑, 카페 등이 많아서 거리를 둘러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미라보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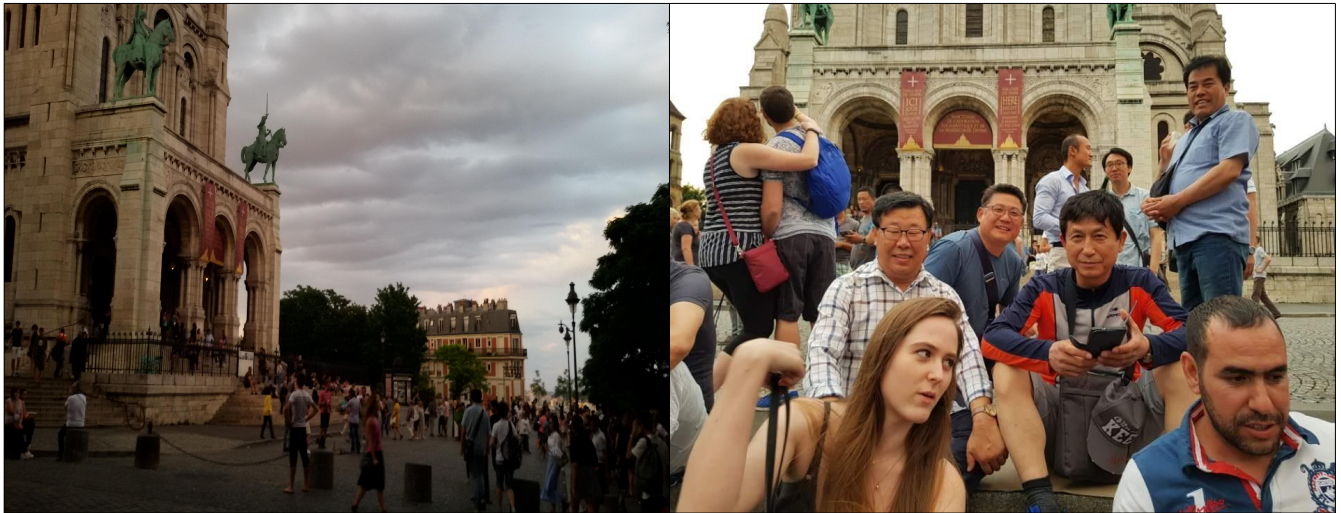


엑상 프로방스내에 있는 미라보 다리는 500년이 넘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들어서 있는 미라보 거리는 카페와 레스토랑의 테이블이 가득찬 가장 큰 변화가이다

※ 인천 중구 관내도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신포 문화의 패션거리가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는 정기적인 불꽃 축제와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개최하여 관광 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 몽마르트

-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 129m의 언덕을 이룬다. ‘마르스 (군신)의 언덕’이라는 뜻이라고도 하고, ‘순교자의 언덕’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또한 근대미술의 발달을 촉진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지역으로서도 유명하다.
-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몽마르트는 예전의 보헤미안적인 느낌을 잃고 상업적인 면만 남았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수많은 예술작품이 탄생한 본거지로서의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어 실망시키지 않았다.
- 또한 주변의 테르트르 광장의 화가마을에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무명화가들과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고 있었다.
- 관련사진



※ 저녁 무렵 테르트르 광장과 몽마르트 계단에 삼삼오오 모여 즐기는 많은 수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파리지내의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8부두항만과 월미산을 내려다 볼수 있는 자유공원이 지역주민들이 부담없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일에도 소규모 공연 등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라고나르의 향수박물관 견학

○ 그라스는 매년 500톤의 오렌지와 장미꽃, 약 400톤의 채스민 꽃을 가공하는 세계 최고의 향수도시다. 온난한 기후를 이용하여 원료가 되는 꽃을 1년내내 재배하는데 그라스에는 이를 원료로 하여 향수를 제조하는 공장이 30곳이 넘는다. 그 중에서 향수로 가장 유명한 프라고나르의 향수박물관을 방문하여 향수 제조과정과 시설 등을 견학하고, 향수를 종류별로 냄새 맡아보는 시향도 하였다.

○ 관련사진



※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향수와 와인”이 있듯이 각 나라별 지역별로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중구 지역에도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자장면박물관과 함께 그 주변가의 중식 음식점이 성행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상권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 한하다 보니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중구전체의 균등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테라스 영업 성행

- 프랑스의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와 보기 어려운 테라스 영업을 성행하고 있다. 환경이 깨끗해서인지 테라스에서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불편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다.
-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테라스 영업을 해서 볼거리도 같이 제공하는 것 같다.
- 관련사진



※ 테라스영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법규에서 허용되지 않아 보편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광특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좀더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지인 월미도나 영종·용유지역내 해변가등에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형태의 문화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향후 허용되지 않는 법규에 대해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등을 건의함과 동시에 기초단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테라스영업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에즈

- 니스 동쪽에 있는 옛 성터 마을 에즈 빌리지(Eze Village)는 꼭 한번 가 볼 만한 곳이다. 에즈 빌리지는 해발 400m에 조성된 중세 마을로 구불 구불 미로같은 골목과 그 사이 사이에 박혀있는 민예품 가게 등이 어우러져 중세풍의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 또한 마을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면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 관련사진



※ 중구의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일부가 최근 ‘카페’라는 영업행위의 붐과 함께 일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 100여개가 넘는 카페가 생겨났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골목길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통한 골목길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금으로도 시작 할 수 있는 청년창업의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에트르타



예술가들이 사랑한 절벽 에트르타, 푸른 쪽빛의 독특한 모양의 코끼리 바위, 석회석 절벽 ‘신이손수만든 예술 작품’이라 불릴만큼 빼어난 경관으로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를 지어질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 해양과 항만 분야

□ 옹플레흐 항구 및 주변 재래시장

- 루앙의 서쪽 74km, 센강이 넓게 펼쳐져서 영국해협으로 흘러드는 좌안에 위치하였다. 700년의 아름다움과 해적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어항과 무역항을 겸한 구항구는 거리마다 펼쳐지는 노르망디 특유의 오래 된 목조가옥 등을 볼수 있어 여유롭고 한가한 낭만 가득한 유럽의 모습을 느낄수 있었다. 항구에는 선박이 정박되어 있고 주변에는 각종 먹거리와 가죽제품 등이 판매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놀이시설이 형성되어 지역상권이 활발히 조성되어 있다.

○ 관련사진





※ 옹플레흐는 구항구로서 일부 옛 목조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새로 지어진 건물도 같이 공존하고 있고, 구항구 주변을 둘러싸고 형성된 재래시장에서는 우리의 신포시장·신흥시장등과 같은 재래시장에서 느낄수 있는 정취를 느꼈다.

오랜된 목조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오랜된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보존하기보다는 안전과 개발이라는 명목아래에 현대식으로 바꾸기를 원해 왔다.

향후 우리에게 아직 남겨진 보존가치가 있는 오랜된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켜내야 할 것 같다.

□ 모나코(해양박물관 견학)

- 프랑스에 둘러싸인 독립국인 모나코는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작고 깨끗한 국가로 세금도, 군대도 없다. 물, 가스 등 생필품과 국정에 대한 일부도 프랑스에 의존한다. 주 수입원 역할을 하는 것은 F-1 자동차 경주와 카지노다.
- 항구 주변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나코의 부호들의 요트가 빼곡하게 정박해 있다. 호화로운 요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로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 모나코의 랜드마크인 절벽에 세워진 해양박물관은 해양학자 알베르 1세가 수집한 해양생물표본과 배모형등이 전시되어 있고 지중해에서는 보기 드문 고래 뼈와 바다탐사 캡슐도 있다.

○ 관련사진



※ 현재 인천시와 중구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향후 유치에 성공한다면 지역에 산재된 해양 문화유산을 수집 등 차별화된 해양관련 전시 콘텐츠를 통한 박물관 조성을 하여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에게 해양문화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니스

-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니스는 프랑스령이 된 1860년 이후 리비에라의 여왕으로 세계 각지의 휴양객이 몰려드는 도시이다
-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천사의 만”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걷고 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 아름다운 바다와 햇살이 즐길 수 있는 곳, 모래가 아닌 자갈로 덮여 있는 해안가, 주변에는 각종 편의시설(호텔, 카페, 레스토랑등)들이 인접하여 휴양객들이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 조형물 “#I LOVE NICE ” 이 해안광장과 공항에 설치되어 니스라는 도시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 관련사진



※ 니스의 깨끗한 바다와 아름다운 산책로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는 덕분에 니스는 휴양지의 명성에 걸맞게 관광 도시로서 성공한 것 같다.

우리 중구도 영종·용유·무의지역내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노력한다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 오는 휴양지의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 기타 분야

- 프랑스는 이미 친환경 트램과 이층버스가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중구도 향후 석탄부두가 이전 된 후 남게 되는 철로를 활용하기 위해 점차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인천시에서 주요관광지에 인천시티투어용으로 개방형 이층버스 2대가 운영될 예정으로 기대가 된다.
- 프랑스 시내를 걷다가 보면 집수받이 시설이 우리와는 다르게 도로 한가운데 집수받이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끝에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져 배수가 용이한 것 같다. 우리의 경우는 도로의 양 끝에 집수받이가 보통인데 쓰레기 등이 들어가 배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좁은 도로가운데의 집수받이도 검토 해 볼만 한 것 같다.
- 관련사진





V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2 차 세계 대전과 캥 전투를 기념하여 프랑스의 노르망디 캥 (Caen)에 있는 노르망디전쟁기념관은 세계각지에서 1년에 40만여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인 사건을 스토리텔링한 노르망디 전쟁기념관이 세계적 명소가 되어 프랑스의 작은 도시 ‘노르망디 캥’ 을 전세계에 알렸다. 우리에게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 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매년 9월에 상륙작전을 기념하고자 월미도에서는 기념식과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구에서는 「월미문화의거리(그린비치)~스토리텔링센터(월미공원)~맥아더길 (레드비치)~인천역」 을 연결하는 핵심탐방로인 자유의 길 조성을 추진 중으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이 일어났던 역사적 장소의 가치를 인식하여 최근에 연수구에 소재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을 중구 월미도로의 이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향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계획대로 우리 중구로 이전 건립되어진다면

중구에서는 역사적 자원과 관광자원을 함께 활용한 새로운 콘테로 개발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인천 중구”를 대표할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프랑스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까지 갖춘 국가이다. 특히 파리는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꽃의 도시이기도 하다. 거리를 걷다가 보면 온 도시전체가 박물관이요 거리마다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저절로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연구하면 노력한 결과물일 것이다.

우리 인천 중구 또한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근대건축물을 많이 보유한 근대개항도시로서 區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며, 볼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공존하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현재는 월미도 ~ 송월동 동화마을 ~ 북성동 차이나타운 ~ 개항장거리 ~ 신포국제시장까지 테마관광지가 형성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구를 찾아오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관광객들의 욕구·성향을 분석·파악한 자료를 DataBase화하여 관광마케팅전략에 활용하여 명실상부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랑스의 남쪽에 위치한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니스는 아름다운 바다와 햇살,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로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우리 중구 역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이다.

용유나 무의도의 유원지는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휴양지로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편의시설 제공과 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인천내항에 대해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항만재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당장 성과를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을 통하여 복합해양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하여 해양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돌려주어야 한다.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VI

연수후기 및 정책제안 (의원별)

■ 중구의회 유명복 부의장

□ 노르망디 전쟁 기념관 일반현황

- 건립 : 1988년
- 건립비 부담 : 주정부, 캥회사, 유립회사 등
- 면적 : 16,000m²
- 근무인원 : 100여명

- 1년 이용객 : 40만명 (10만명 : 학생)
- 대행업체 : 벨기에 회사 합작 운영 (민간위탁:입찰)
- 계약기간 : 7년
 - 건물보조금 : 주 정부 지원
 - 운영비 : 위탁회사
- 운영수익 : 기념품, 레스토랑, 입장료, 임대료
 - ※ 특이사항 : CCTV를 통하여 관람객 편의 및 이용에 따른 집중 관람 자료화
 - ※ 인근 기념관의 동향 : 3개의 기념관에서 년 70만명이 관람

□ 관람으로 인한 역사 현장교육 부여

- 방문객의 관람 소요시간을 45분을 넘지 않도록 구상 하였으며 한계시간을 넘으면 역사 관람을 가슴으로 받아 들이는 시간이 아닌 지루한 무의미한 시간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운영의 전략과 교육효과 거양

□ 노르망디 전쟁기념관 방문시 질문내용

- 전쟁기념관은 어떤 곳인지?
 -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각종 자료와 영상, 사진, 그림, 문헌과 다양한 역사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음
- 전쟁기념관 설립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가?
 - 주정부, 지역의 캅회사, 유럽회사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1988년에 건립
- 전쟁기념관에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자료들은 어떻게 갖추어 질 수 있었는가
 - 민간 및 인근 국가에서 기증을 받았으며 일부 매입도 하였음
 - 다른 박물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서로 교환 하기도 하였음
- 노르망디 전쟁기념관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수입 보다 운영상의 지출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부족분에 대하여 어떻게 충당 하는지 ?
 - 건물 보조금은 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 수익은 기념품, 레스토랑, 입장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10만 밀리언([million](#)) 정도 됨
 - 수익금 처리 절차는 회사 ➡ 지자체 ➡ 회사(수익금)

○ 기념관 자료들은 어떻게 구상하였는가?

- 모든 자료들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 역사가들하고 논의 자문을 거쳐 주제들은 분야별로 자료화하여 선생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협조를 받아 그 속에 사건들이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을 시대적 사건에 맞게 구상 하였음

○ 인천에 전쟁기념관 또는 그외 박물관 설립에 있어 조언해주고 싶다면 ?

- 노르망디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서 1944년 미국과 영국군이 주력이 되고 기타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등 8개국의 연합군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령 노르망디 해안에 사상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것이고
- 한국은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갈라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난 바와 같이 전쟁과 작전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시 세계 정세를 둘러보면서 양강구도의 주변국 패권주의 소용돌이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의미가 다르다
- 상륙작전이 왜 일어났는가 6.25 사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 안에 인천의 상륙작전이라는 작전계획이 성공함으로서 전쟁을 반전시킨 작전의 개념에서 시대적 사건들을 집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상륙작전의 의미와 평가

○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의미

-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군 대규모 지상병력이 영국해협을 건너 히틀러의 독일군을 공격한 대규모 작전이었고 유럽 탈환의 작전에 발동을 거는 최초의 작전이었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인명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미 대소 전선에서 연패를 당해 패색이 짙은 독일의 후방을 들이친 것이어서 독일의 패망이 곧 확실히 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전투이기도 하였다

○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평가

- 인천 상륙작전의 진정한 의의는 유엔군이 우회기동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을 일거에 차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의 계기를 조성해 주었다는 점이다
-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인천의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을 복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서울 수도 탈환의 성공은 심리적으로 국군 및 유엔군의 사기를 크게 제고시키고 북한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게 하였다는 점이다



□ 정책 제언

○ 무인 동전 공중화장실 설치

- 시내 중심가 인도변에 2평 남짓한 규모로 겉으로 보기에 버스표 판매점 처럼 보이는 시설물이 흉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가까이 가 보니 영문으로 화장실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때마침 생리적인 현상의 느낌이 다가와 동전을 넣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깨끗하였다.
-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구에도 접목 한다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욕구해소를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 주택가와 이면도로를 불법적으로 수 놓은 정체 불명의 의류수거함들이 즐비하게 가로수나 기둥 등에 고정을 시킨채 놓여져 있어서 보기에든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어느 불특정 단체명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관리도 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실태이므로
-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의류수거함을 제작하여 재활용

수거는 물론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중구의회 김영훈 운영총무위원장

○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차원에서 기념 보존함과 동시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증적 교육장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과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비 28억원과 시민 성금 15억원 등 43억원의 비용을 들여 1984년 9월 15일 개관하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진 우리 중구에 터를 잡지 않고 영동하게도 인천상륙작전과 전혀 연관이 없는 연수구에 자리 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월미도로 옮기고 기념관을 국립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위해 최근 국립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건립(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계획을 세웠다

이제서라도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으로 기념관만이라도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진 점에 대하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해 마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자리에 그 역사에 대한 자료나 사료등이 존치되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이러한 역사를 후세에 정확히 알리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역사상 우리와 같은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바꾸어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이 한곳 더 있다 그곳이 바로 프랑스 북부에 위치해 있는 노르망디 지방의 ‘껀(Caen)’에 위치해 있는 ‘노르망디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 프랑스는 우리나라 6.25전쟁때 참전한 16개국 중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이다.

6.25전쟁 당시 프랑스 정부는 군사 고문단 12명만 한국에 보내려 했지만 몽클라르(Ralph Monclar · 1892 ~1964) 장군은 한 달간 프랑스 전역을 돌며 대대급 병력 600명을 모집했고, 대대급은 중령이 지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계급까지 낮춰 6·25전쟁에 참전해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에서 총검을 들고 맞서 싸우는 백병전까지 벌인 끝에 미·불 장병 5600명이 중공군 3만명을 몰아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선 133척을 물리쳤던 것처럼 말이죠."

몽클라르(Ralph Monclar · 1892 ~1964) 장군은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으로 이미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중장 계급의 백전노장이었다. 하지만 대대급은 중령이 지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계급까지 낮춰 6·25전쟁에 참전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반대했지만 몽클라르 장군은 "자유를 위해 피 흘리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고 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인천상륙작전과 흡사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하여 전쟁을 마무리 한 곳이다

연합군측은 당시 작전명 오버로드(Overlord)라는 북부 유럽 침공 작전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개시 단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작전명은 넵툰(Neptune)작전이었다. 오버로드는 대군주(大君主)를 뜻하고 넵툰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해신(海神)의 이름이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영국군의 프레데릭 모건 중장이 이끄는 기획팀이 계획을 세웠는데 사상 최대의 작전이었으며 육해공군을 모두 망라한 것이었다. 넵툰 작전은 1944년 6월 6일 개시되어서 노르망디 교두보가 완전하게 확보된 1944년 6월 30일 종료되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었고 지상군 사령관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였었다. 독일측의 방어사령관은 프랑스 주둔 독일 집단군의 총 사령관인 게르트 폰 룬트슈테드 장군이 아이젠하워와 같은 격의 최고 지휘관이었으며 대서양 해안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장군은 북 아프리카에서 용맹을 떨친 에르빈 롬멜 장군이었다.

이러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관은 프랑스 북서부 나크르 해안(Côte de Nacre)의 남쪽 도시 바이외(Bayeux)에 있는 곳에 있다. 바이외 태피스트리 박물관(Musée de la Tapisserie de Bayeux), 바롱 제라르 박물관(Musée Baron Gérard)과 함께 지역의 주요 전시관이자 관광명소로 꼽힌다. 현재 시내 중심가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코르들리에 거리(Rue des Cordeliers)에 세워진 건물을 박물관의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르망디 전투 기념 박물관(Musée du Mémorial de la bataille de Normandie)’이란 명칭으로 대중들에게 처음 문을 열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기념관’으로도 자주 불린다. 총 2000m²에 이르는 전시관에 노르망디 전투(Bataille de Normandie)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 유물, 문헌, 영상 등을

진열해 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인 1944년 벌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투로 인해 연합군은 독일군에 점령당해 있던 프랑스를 탈환하고 전쟁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었다.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전쟁 승리의 환희를 보여주는 사진과 선동 포스터, 실제로 쓰였던 전쟁 무기 등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역사적인 자리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많은 홍보등으로 관광객의 유치 및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역사를 무시하고 있는듯하다.



○ 두번째 방문지는 바다위의 수도원이라 불리워지는 몽생미셸(Mont St. Michel)을 방문했다.

수도원이기는 하지만 찾는이들이 너무 많아 수도원으로서의 기능은 사실 어려워 보인다. 그냥 걸어올라가기에도 쉽지않은 돌계단을 오르며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완성하기위해 희생되었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들을 기억해본다.

수도원을 완성하는데 걸린 세월은 나로서는 짐작할수조차 없는 일로서 섬 하나 전체가 수도원이고 수도원 전체가 하나의 마을로 이루어진 완벽한 요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도 프랑스인들의 자연보호를 볼 수 있었다. 요세를 가는 바닷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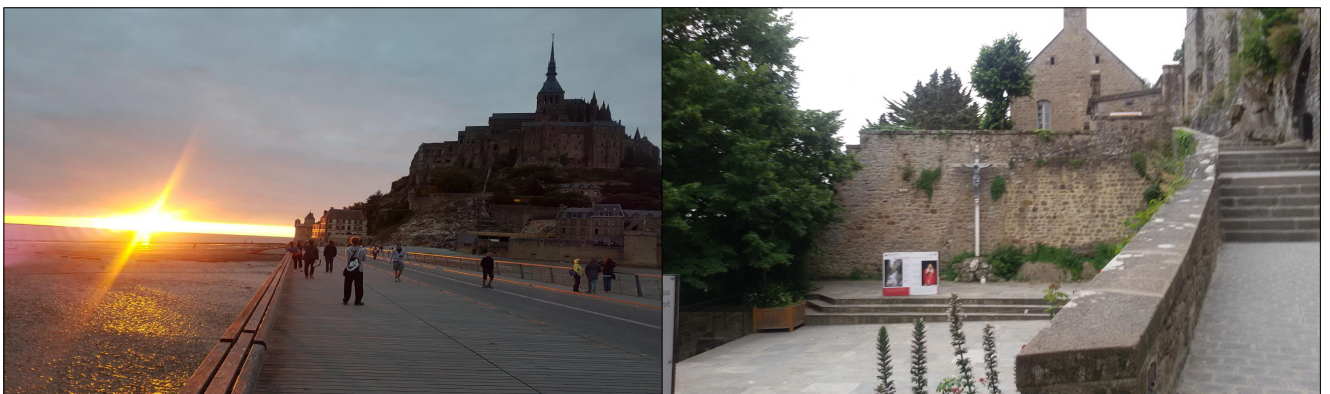
약 1킬로미터 정도였으나 넘치는 관광객들의 자동차등이 거리를 누빌 것을 우려 버스로 약 5분여 거리에 모든차를 주차하고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을 타고 들어가게끔 배려해 놓은점 또한 인상적이었다.

수도원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침 저녁노을이 지고 있어 몽셀 미셸을 배경으로 넘어지는 낙조또한 환상적이었고, 밝을 때 보는 수도원과 어두울 때 수많은 조명이 비추어질 때 보는 수도원의 모습.

같은 곳인데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 그동안 나는 유럽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경이롭다 할 수 있을정도의 자연 환경을 물려받아 풍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 했었지만 막상 이곳을 방문한 후 나의 생각이 짧았고 무지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조에게 화려한 자연환경을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자연을 보호하고 역사를 계승하고 지키려는 프랑스인들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전쟁이나 침략 등으로 다 없어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선조들의 역사를 지키고 가꾸려 하지 않고 재개발을 이유로 너무 많은 역사를 없애지 않았나 다시 한번 후회를 한다.



■ 중구의회 임관만 의원

- 전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서유럽 최고의 관광지 프랑스 시찰을 통해 도시의 정취와 문화를 유럽은 흔히들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이 덕을 보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프랑스 연수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단순히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하여 오늘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발전한 것 같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후손들에게 쓰고 물려준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존·개발을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프랑스는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유산으로 이를 관광자원하여 관광수입이 세계최고의 나라이다. 우리 중구도 알고 보면 근대개항 건축물이 많아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최근에 송월동 동화마을주차장을 조성사업을 하다 허물어진 애경사건물을 보면서 의회에서 제정한 “인천광역시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좀더 일찍 만들어졌으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부터 이 조례를 근거로 중구관내 가치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뿐 만아니라 이 또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랑스 에즈를 방문하여 보니 구불구불 미로같은 골목길에 소규모 민예품 가게등 형성되어 상권이 조성된 것을 보았다. 내가 살고 있는 율목동이나 도원동은 구도심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공가도 점차 늘고 있다. 율목동이나 도원동의 일부지역을 선정하여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로 재구성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이점을 백분활용하여 지역청년 창업자들을 모아 소규모 상권(공예품등)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 니스공항과 니스 산책로 해안가 갔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I LOVE NICE”라는 조형물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중구에도 박물관이나 테마

거리에 어울리는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중구’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는 조형물이 없는 것 같다. 우리도 국내외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월미도 같은 관광지에 ‘INCHEON JUNG-GU’ 조형물을 조성한다면 좀 더 중구를 홍보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미술관·박물관 등을 관람하는 유럽 관광객들의 성숙한 관광객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입장부터 시간이 걸려도 불평없이 본인의 차례를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관람 할 때도 조용히 정숙한 태도로 작품을 감상하며 타인의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관광지등에서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타인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는 우리모두 조금은 여유롭게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어디를 가든 성숙한 자세로 즐기는 문화에 배워야 할 것이다.



관광객들의 관람자세



에즈의 소규모 민예품 상점



니스의 조형물

▣ 중구의회 한성수 의원

- 프랑스를 둘러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항만과 내항에 대한 시민의식과 활용이었다

내항은 말그대로 주민들의 삶 깊숙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항구로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요트나 작은 배들이 정박하여 쉽게 식당과 호텔시설을 이용하고 그 지역을 즐길 수 있는 게이트역할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생업의 현장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자연스레 간이 장터가 서게 되어 여행객, 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구심점이 되어주고 있었다.

- 프랑스 북부의 옹플레흐의 경우 예전 바이킹, 해적들의 교역중심지, 소금 생산거래지에서 이제는 쇠락한 작은 마을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파리에서 차로 2시간이나 떨어져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살아남은 것은 다름 아닌 내항덕분이다

쓰레기나 부유물이 없어 냄새가 나지않고 주민들 집앞 코앞까지 들어와 정박해있는 요트들은 하나의 좋은 구경거리이자 포토존이 되는 동시에 여행객을 쏠아내기에 주변 카페 식당 숙박시설 기념품샵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우리중구처럼 오래된 개항도시이자 교역도시였던 옹플레흐에는 작은 해양박물관과 배를 뒤집어서 만든 목조성당이 잘 관리, 유지되고 있어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 남프랑스와 모나코 쪽의 항만과 내항은 더욱 화려했다

남프랑스 니스와 망통사이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 모나코는 내항과 외항이 공존하며, 낮은 건물이 주를 이루던 남프랑스의 오래된 옛 도시들과 달리 고층빌딩이 빼곡하고 고급 요트와 수많은 배들이 정박하여 그 자체로도 장관을 이룬다. 내항과 외항이 공존하기에 요트 등을 정박하기도 용이하고 풍족한 인근지역의 물자를 운송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으며, 그 내항과 외항을 둘러싸 작지만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매년 5월에는 F1대회로 모나코인구의(3만2000명) 3배가 넘는 10만명이 모나코를 방문하고 그 외에도 1월의 서커스 페스티벌, 7,8월의 모나코 불꽃 축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외항인 몽비에유항구에 배를 정박하고 근처 카지노에서 여가를 즐기는 러시아 부호들과 세계각지에서 온 관광객을 보니 천혜의 자연환경에 더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시설과 축제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력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고, 또 그로인해 넉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삶의 여유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10년 국부 알베르1세가 설립한 해양박물관에는 90개의 해수 수족관과 살아있는 산호와 1만 여종의 해양생물이 있어 유럽최고의 아쿠아리움으로 손꼽힌다.

우리 중구도 좀더 멀리 내다보는 계획적인 내항 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면 모나코 못지않은 세계적인 내항을 가진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수많은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로인해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리는 주민..이보다 완벽한 조화는 없을 것 이다.

